

# 사(史): 시대와 정신

## 기말보고서

2011\*\*\*\*\* 영문학과 김세영

# Index

## I.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 II. 본론

-보수진영의 주장

-진보진영의 주장

## III. 결론

# 한국의 '동성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I. 서론II

### -연구목적

2007년 MBC에서 한 드라마가 엄청나게 큰 센세이션을 몰고 왔었다. 바로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가 주목 받았었던 이유는 극을 이끌어가는 전개나 연출도 아닌 바로 드라마가 갖고 있었던 '동성애 코드' 때문이었다. 극 중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은찬'은 남장여자로 나온다. 여기서, 고은찬을 남자로 알고 있던 남자주인공 '최한결'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고은찬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애정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결말에는 최한결은 고은찬이 여자임을 알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동성애적 코드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드라마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질타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적 코드를 가진 이 드라마를 환영했다. 또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많은 드라마에서 직간접적으로 동성애코드를 집어넣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동성애라는 주제에는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동성애 결혼 '허용'과 '반대'라는 대립구도는 쉽사리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15년 6월에는 서울에서 퀴어축제가 열렸고,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어느 쪽에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위에 동성애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누군가가 솔직하게 동성애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하면 아마 '잘 모르겠다'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필자에게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완화되지 않고 심화되는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이라는 이슈는 앞으로 필자는 많이 마주쳐야 하고 그 때마다 스스로의 생각이 정리되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말 보고서의 주제를 동성애로 정했다.

### -연구방법

먼저 대한민국의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의 현실을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미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법적으로는 어떠한지를 연구한 후,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 끝없는 싸움을 멈추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 할 예정이다.

## II. 본론

### -대한민국 동성애의 현실

먼저 두산백과에 따르면 동성애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한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정신병이 아닌 천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는 인구의 77%가 양성애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두산백과에는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동성애가 호르몬의 부조화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이론도 있고,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심리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학습이론 등이 있으나, 정설은 없으며,' 라고 적어놓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오피니언에 따르면 'DSM-I과 DSM-II(1965)에서는 동성애를 성격장애로 분류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반대로 '=DSM-III-R(1987)에서는 자아이질적 동성애 조항이 삭제돼 동성애 진단평가가 사라졌고, DSM-IV(1994)에서는 동성간의 성관계에 관한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게 됐다. 대신 아동기 분야에서 Gender Identity Disorders(정체성 장애) 조항만이 다뤄지고 있다. 그 이전 1972년에 미국심리학회는 이미 동성애를 성격장애자 분류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적혀져 있다. 즉 동성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또 이것이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도 증거로 내놓을 만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의 분류가 누가 얼마나 더 격렬하게 지지/반대 하는지에 의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동성애 결혼'이 불법이다. 헌법 제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적혀져 있다. 여기서 양성이라는 단어가 사용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또한 용납하고 있지 않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라는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배우 홍석천의 커밍아웃 그리고 영화 감독 김조광수의 동성 결혼식(합법화된 것은 아니다.)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올해 6월 퀴어축제를 열게 되었는데 이를 서울시에서 받아드리면서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달라며 요구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퀴어 축제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결국 퀴어 축제가 열렸던 날에 퀴어 축제 장소 옆에서 퀴어 축제 반대 기도회가 열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러한 현상들만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동성애 대립구도

동성애 이슈에 관해 가장 대립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진보와 보수 일 것이다. 기독교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동성애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와 그에 맞서, 동성애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 단체들의 날 선 대립은 끝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조금만 이들의 논쟁을 살펴본다면 진보와 보수는 같은 내용과 주장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쟁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보수

보수와 기독교인들의 논리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바로 성경과 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답이 나온다. 먼저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며 이들을 죄인으로 분류한다.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써 벌을 받았다. 즉,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암수 짝을 만드셨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둘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즉,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즉 자연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동성애는 그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이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하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에서 결혼이란 이성 결혼이어야 한다. 남성적이고 강하고 단호하며 지배적인 아버지는 아들의 역할 모델이며, 딸에게는 장래 남편감의 모델이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남편 그리고 아빠로서의 남자의 역할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의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지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동성간의 사랑 그리고 결혼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아기의 문제도 생긴다. 동성간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 보수에서 주장하는 온전한 가정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보수 입장의 주장은 매우 확고하고 기본적이다. 조상부터 내려오던 결혼과 가정이라는 개념을 해치는 것에 대한 반대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그리고 그들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의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 결혼 같이 이러한 개념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립하는 진보의 주장은 어떠한지 어떠한 근거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진보

이들의 주장은 보수의 주장과는 매우 다르다. 이들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바라보는 것을 매우 혐오하며 반대한다. 이들은 이성애자들이 이성을 사랑하게 되듯이 동성애자들 또한 동성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스 오피니언을 쓴 익명의 성소수자 기자는 '어떻게 성적 소수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여느 사랑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이런 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비슷한 깨달음과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라고 말하며 동성애의 사랑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그들의 인권에 이야기한다. 단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당했던 고통을 호소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한다. 동성애자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의 타의로 박탈당한 인권에 대해 비판하며, 고칠 것을 요구한다.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활동가 장병권씨는 군대에서 차별 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2006년 2월 당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상담 메일이 도착했다. 현역 군인인 그는 동성애자인데, 군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더니 군 당국에서는 "동성애자인지 증명해봐라", "성관계 사진을 제출하라"고 반응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연대에서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니 부대 복귀를 할 수 없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 사람이 온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선 '일단 들어오라'고 했지요. 결국 국군통합병원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받은 피해를 바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전역 조치되었어요.'"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한국 동성애에 대한 현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장병권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에서 실시된 동성애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인식변화가 있는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동성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 나온 것과 같다. 즉, 아빠, 남편 같은 남자 역할과 엄마, 아내같은 여자 역할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부모로서 충분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리하면 진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권이다. 즉,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을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자신이 선택할 자유,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동성을 싫어할 자유는 있지만 그들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 Ⅲ. 결론

#### -분석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끝날 수 있을까? 한쪽은 과거부터 내려온 섭리를 그리고 다른 한 쪽은 인권을 외친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 사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어느 한 쪽이 더 우세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에 어느 한 쪽이 더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둘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섭리를 선택하게 되면 호모포비아로 몰릴 수 있고, 만약 인권을 선택한다면 과거부터 내려오던 개념이 깨지면서 본인의 사고방식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둘의 주장에 어느 타협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80도 정 반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타협을 할 때가 왔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더 많은 국가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수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영 모두 할 일이 있다.

먼저 보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죄인을 미워하라고 한 적 없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라고 했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적혀있다. 남을 정죄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수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 배우 홍석천은 교회를 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보수는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지금 서로 귀를 막고 아예 상대방의 주장조차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로 이야기 하면서 공감을 하고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도 과거부터 내려오던 과거의 섭리이고 진정한 의미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급급해하면 안 된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진 역사는 매우 길다. 역사가 긴 만큼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럴 때, 무조건 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은 틀렸기 때문에 당장 생각을 고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차근차근 그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 그 와중에 상처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과정이라 여기고 성과를 바라본다면 충분히 대한민국도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로간의 양보가 절실할 때이다. 내 주장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반박하고 타협하는 것이 올바른 토론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1. 우남식/<[기고] 동성애, 성(性)의 중요 목적인 생명을 잉태하는가?>/크리스천투데이/  
2010.12.20/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3333
2. 익명의 성 소수자 기자/<당신이 '동성애'를 싫어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미디어스/2015.03.30/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80
3. 이재훈/"시민들 '동성애 수용도 증가율' 높은데도 제도는 요원"/한겨레  
/2015.03.2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83548.html
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365&cid=40942&categoryId=31531  
[2015.6.15 인용]
5. 조지 레이코프/코끼리는 생각하지마/2004/pg.182~183